

# BAZAAR Harper's

## Life



# Let's Pretend We're Swans

고비와 파린에서 먼저 주목한 미디어아티스트 이재이 가 던지는 질문. "우리 백조인 척, 토끼인 척 할까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자? 피쳐 에디터/김경  
Photographed Ahn Hajin

**동** 네목욕탕에서 '백조' 라든가 '나이아가라 폭포' 가 그려진 벽화를 본 일이 있을 지 모르겠다. 그게 색구려 채료로 조악하게 만들어진 '가짜(Pake)' 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명백한 그 '가짜' 를 '진짜' 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으로써 이것이 이지를 거두어내고 욕망의 근원적 탐구하려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재이라는 아티스트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보다 아주 쉽다. 너무 쉬워서 우스운 정도다. 바로 땅 걸고 해업치기! 이재이는 하얀 머릿수건과 섀색 수영복으로 백조인 척 관객을 기만하며 목욕탕 수련 뒤를

뒀다)이라는 제목의 작업인데, 스카 같은 데가서 마시지 못했어 누군가의 머리 쓰다듬어주듯이 스스로에게 하는 'Pumper'의 일원으로 귀를 파는 거다. 그런데 내가 토끼 귀를 달고 그 귀를 파지 않나? 사실 내 귀도 아나? 아무런 파봐야 할만 아프다. 욕망과 그것의 실현 불가능한 현실의 괴리 같은 걸 밝히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킨처럼 생긴 가짜 토끼 귀를 달고 그 귀를 파는 거다. 그럼 진짜 내 귀도 아니고 사실 아무런 파봐야 할만 아픈 거다. 욕망과 그것의 실현 불가능한 현실의 괴리 같은 걸 말하고 싶었다.**

이제는 데우기였다. 침 무개 대단하다.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미술 공부하기 시작했나? 어린 시절 본인의 재능이나 열정은 어땠는지. 재능이나 열정이라니 쓸데없는 질문이다. 날이 멀수록 때부터 연출하는 거, 풀잡는 거, 그런 거야 신경 쓰던 거 같다. 미술을 하게 된 계기가 재능과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이 그렇다. 시카고 파인아트 인스티튜트에서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미술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나? 나도 해부 때는 페인팅이나 조각을 했다. 그때 다그는 붓하기의 첫날, 너무나 우연히 퍼포먼스 클래스를 들었는데 그때 그 수업은 들었는데 학생이 좀 많아서 제비뽑기를 했다. 그 제비뽑기에서 뽑히면서 정말 일발절에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다. 처음엔 대대승을 건 줄도 없는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할 만큼이었다. 당시에 뉴욕은 어떤 도시인가? 뉴욕은 내게 무부는 집이랑 동시에 태어난 것이다.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곳.



유유리 해업치는 척 연기하는 비디오 아트를 만들었다. 그게 대단하다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장차처럼 자기가 꿈나리의 꿈이, 실은 나리까 꿈 장자 아닌지 의심해봐 최초의 서양 철학자가 그것도 무를 관찰한 장 보드리야르였다면 이재이는 한 수 더 앞서 카치의 아이러니를 활용하여 나비의 장자의 주객전도적 전환을 유미리스하게 폭로한 거다구. 관객뿐만 아니라 결집한 장 보드리야르를 들먹이는 비평가들의 혀를 찌르는 이 작품 덕분에 이재이는 지난 10월 한 달을 눈썹이 휘날리도록 비뺌해 뛰어나다 자랑했다.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최대 비엔날레에 초청받았고, 뛰어난 프랑스 파리 마레 지구구의 갤러리거나 나뭇에서 단독 전시회가 진행 중이며, 10월 26일부터는 서울 갤러리 백도리에서 개인전을 열 계획이다. 그런데 이재이는 건 뉴욕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무명의 재미작가라 국내에 알려지기가 거의 없고 이제 몇몇 불꽃이 터진 격이라 (마)를 제외하고는 어느 매체도 미처 주목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다. 신장아에게는 이 팔린 한국 언론을 대표하여 (마)가 고맙게도 날아가기 8시간 전 서울에 잠깐 들른 이재이를 무척으로 만날 수 있었던 천 행운이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감에 당신에게 경계하는 것은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감에 당신에게 경계하는 것은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감에 당신에게 경계하는 것은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감에

**욕망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자. 작곡로서 욕망에 대한 탐구는 언제부터 하게 되었고, 언제, 이미저리는 게임은 민품, 보조자라는 민품 보인다고 생각할 때부터?**  
특히 '가짜 욕망' 에 주목하게 된 게 있나? 아, 내가 가짜라고 하는 건 욕망을 둘러싼 이미지들이고, 욕망은 진짜다. 이진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여기서 욕망이란 오브제의 음악 같은 거다. 오브제가 자기 부인을 구하려 음악을 연주하며 지해해제인 지 풍일인지로 내리가지 악마도 감동기면 안아름다움 음악을 연주하지 않나? 오브제를 하려면 지화로 내리가지는 건요하다. 부인이라. 부인을 구한다는 건 핑계이지. 비디오 작업 중에서 당일이 가짜 토끼 귀를 달고 민품으로 성실귀를 파던 작품이 인상적이었다.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가? (림품 링 (pumper) 욕망을 한껏 채워주다, 만족시켜주다, 욕망을 받아안는다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감에 당신에게 경계하는 것은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감에 당신에게 경계하는 것은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감에